

## [가정의달특집 1] 당신의 가정은 누가 주인입니까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 1999

우리는 모든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 성경적 가정, 그리고 현대적 가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가정은 성경적 가정의 모델입니다. 우선 이 성경적 가정을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과 비교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권위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구성하는 권위가 무엇인가, 어떤 권위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통적 가정’의 경우에는 남성의 권위가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소위 가부장적 사회의 전통에 입각한 권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가족이 움직입니다.

반면 ‘현대적 가정’에는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 누구의 권위도 사라진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가부장적 체계가 무너져 내린 사회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없으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저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표현처럼, 식구들이 저마다 자기 옳은대로 행해버리니까 그 결과는 무정부주의적인, 지도자가 없는 혼란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꺼리지 않는데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가정에서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이 당신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 .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따금씩 실감나지 않을 때 이렇게 고백해보십시오. ”주인님. . . “당신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분이 주인이 되어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계셔야만 합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가정을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 한 식구로 모여 사는 '진짜 헌신'의 모습

'권위'의 문제로 가정 유형을 나눌 수 있다면 또 하나 헌신의 문제로도 가정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의 식구들으리 묶고 있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가정을 하나되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세 부류의 가정이 나뉘어 집니다. 전통적인 이 가족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뉘, 결혼했으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하는 일종의 사회계약과 같은 관습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결혼했으니까 살아야지 뉘. 이제 별 수 있나"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현대적 가정은 이 전통적 가정과 대조를 이룹니다. '실용적 헌신'이 가족간의 끈을 묶어 줍니다. "왜 우리가 식구로서 머물고 있는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라는 필요에 의한 사랑,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대적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격적 헌신'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중하다는 인식이 성경적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이런 인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적 헌신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결혼이 '사회적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전제가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주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고, 주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 가정의 적응성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가정 유형을 나눌 때 '적응성'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적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전통적 가정의 경우는 보통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야?"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전형적인 율법주의적 성향의 모습입니다. 이 경우, 경직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규범도 없고 규칙도 없고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결과는 혼돈입니다. 현대적 가정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성경적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지배하는 원리는 은혜

입니다. ‘은혜적 성향’이 서로에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은혜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요? 급누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나를 용납하셨다면 당신도 아내나 자녀, 남편을 은혜로 대하고 계신가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위하여 율법과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서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율법이 타율적이라면 은혜는 자율적입니다. 율법이 강제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은혜는 감동적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내 소에서 나를 감동시킵니다. 이 은혜로 나는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까지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실수와 약점을 보시면서도 은혜로 나를 받으셨고 용서하시고 구우려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는 실수를 용납하고 실수를 치유하며 보다 나은 상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정의 유형을 나누는 마지막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표현)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봅시다.

전통적인 가정은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사소통에 있어 억압적이지요, 그저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고 할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그 반면에 현대적 가정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다보니 목소리의 충돌과 존재의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항적인 가정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화의 원리’에 따릅니다.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한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화가 있으면 타협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 타협을 마치 죄스러운 것과 동의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절대적으로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을 꼭 짚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어느 쪽이 보다 더 좋으나 덜 좋으나, 혹은 어느 쪽이 더 큰 악이나 보다 작은 악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흑과 백의 분명한 선택이 아닌 이상 서로의 의견을 조화시키는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타협은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마침내 아름다운 타협에 도달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역기능적 가정, 순기능적 가정

당신의 가정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가정입니까? 무엇보다 역기능적 가정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 가정과 현대적 가정의 부정적 요소들이 어울려 수습 불가능의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가리켜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적 가정은 가족 공통의 가치관 위에 가족 상호간의 존경을 증진시키고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한 타협을 이를 줄 아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순기능적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이란 순기능적 가정인 셈입니다.

- 규장문화사, 「가정행전」에서.

\* 출처 - 온누리신문